

# 비단실 뿜던 나주 '문화' 엮는다

### 옛 잠사 활용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나빌레라 문화센터' 거점 4개 분야 20개 사업

나주시가 옛 잠사(蠶沙)를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문화도시조성센터는 일제강점기 명주(비단)실을 뿜었던 옛 나주잠사(蠶沙)를 리모델링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나나센터)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10월 문을 연 나나센터는 나주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면적 5117㎡, 연면적 2187㎡로 전시실·공연장·음악 연습실·작업실 6개동 등을 갖췄다.

나주문화도시조성센터는 나주문화도시 조성사업 프로그램이 4월부터 시작한다. 나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문화도시, 나주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통과 혁신이 순환하는 문화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 사업 방향도 '시민 스스로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활동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창의적 접근을 시도한다.

센터는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다양·자유·공존·지속 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시민사회와 보다 활발한 소통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주요사업은 시민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해가는 '시민문화기획단 운영',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살아있는 실험실로서 특색 있는 '마을리빙랩 추진', 시민자율·연계·생활밀착형 사업인 '슬기로운 수다생활',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달빛학교', 동아리지원사업 '나주문화 산책-내가 만드는 나주여행' 등 4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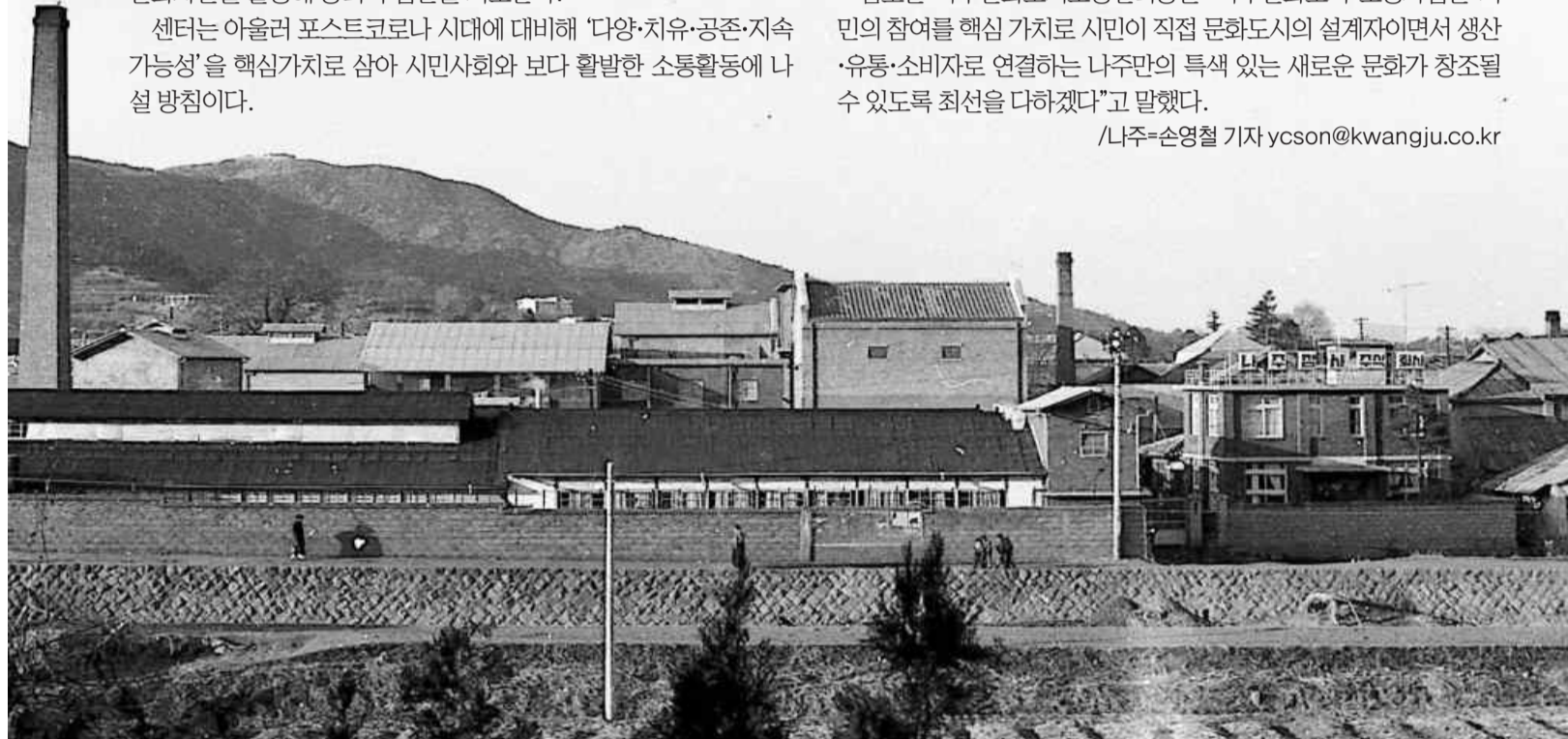
여기에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나나센터' 시설을 지역민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공간스위치 운영사업'도 추진한다.

센터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의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기획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체험휴양마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등의 기관·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원과 문화독립도시 나주의 사회적 자본 구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호균 나주문화도시조성센터장은 "나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의 참여를 핵심 가치로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의 설계자이면서 생산·유통·소비자로 연결하는 나주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나주문화도시조성센터는 옛 나주잠사를 리모델링 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옛 나주잠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화순군, 강도 높은 규제 개혁

### 농공단지 입주절차 간소화 등 55건 개선방안 마련키로

화순군은 혁신과제 24건과 민생규제 31건을 발굴해 강도높은 규제 개혁에 나선다.

화순군은 최근 분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이 참여한 가운데 불편을 유발하거나 원활한 군정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규제 혁신 과제 24건과 민생 규제 31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 개혁 과제는 ▲농공단지 구역별 입주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연령·횟수 제한 폐지 ▲농업용 저온저장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이다.

화순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읍·면별로 업체와 소상공인, 농어민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융부스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갑 화순부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이 우량 한우 조기 선발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 육종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우량 한우 암소 조기 선발체계 구축

### 2억5000만원 들여 1000여마리 선정... 품종 개량 효과 극대화

강진군은 우량 한우 조기 선발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 육종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한우 개량은 씨수소 정액으로 계획 교배해 후대 검정을 통한 육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량 암소 선발까지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계 정보에 의한 반쪽짜리 개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진군은 설명했다.

강진군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기술 이전된 초음파 육질 진단과 유전체 분석, 생체 난자 흡입술 방식의 수정란 이식을 진행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농촌진흥청 국비 2억원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지역 내 한

우 암소 1000여마리를 선정했다. 먼저 총 12~24개월령 암소에 대한 육질 초음파와 유전자 분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선발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한다.

암소 유전능력과 최적의 교배 프로그램을 적용해 품종 개량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수능력 암소와 우량 종모우의 수정란 이식 실증을 동시에 진행한다.

김춘기 강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단기간에 한우 품종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공격적인 육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와 유전자원이 지역 내로 확대 전파돼서 강진 한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다문화 민원인 의사소통 걱정 마세요”

### 장성군, AI 통·번역기 도입...65개 언어 지원

장성군은 외국인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통·번역기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65개 언어를 지원하는 통·번역기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됐다. 수요 조사를 거쳐 읍·면 민원실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장성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외국어 주민은 약 1000명이다.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적이 다양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이 소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 담빛지구 세수 확충 대비 신규 세원 174억 증가

담양군은 지난해 조성한 대규모 전원택지개발 사업단지인 담빛문화지구가 자주재원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에 조성한 담빛문화지구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680가구와 택지 814필지가 준공돼 아파트는 입주를 완료했고 주택단지는 전원주택들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세 신규 세원도 17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결산액도 전년보다 37.2% 증가한 797억원을 기록했다. 인구 유입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